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를 도우시는 큰어머니회의 봉사 모습



배성진 펠릭스 선생님의 지도로 <착한 의견의 어머니> 브레시디움 회원이며 큰어머니회 회원 두분이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컴퓨터실에서 한글 키보딩을 배우고 있는 모습.



"아.. 한글 컴퓨터 너무 너무 재미있네.." 세분 큰어머니회원이 컴퓨터삼매경에 빠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 이제 곧 한글 인터넷과 한글 이메일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실것으로 예상됨.



2010년 2월 27일 간식으로 제공된 스파게티와 밋볼을 준비하고 계신 큰어머니회원들. 야구모자 쓰신분은 모든 식재료를 기증해 주신 이 헬렌 성 김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성모회장님. 맨왼쪽은 백 글라라 자모회장님, 오른쪽 세분은 노백구역의 정 미셀, 신 아가다, 김 세실리아 자매로 어린이들을 위해 음식 만드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심.



<착한 의견의 어머니> 레지오 단원이자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의 큰어머니 회원들이심. 토요일 아침 회합이 끝나면 컴퓨터실에서 한글 키보딩 공부하시고 어린이들을 위한 간식 마련에 도움주시는 분들. 화사한 봄날 햇볕처럼 여섯 큰어머니회원들의 표정도 밝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을 위해 맛있는 클럽 샌드위치를 만들고 계신 큰어머니회 회원들 (김 아가다, 주 마가렛 자매). 이분들의 자녀는 이미 다 장성했지만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오전 귀한 시간에 우리 학교에 오셔서 맛있고 영양가있는 간식을 만들고 주고 계십니다.



2009년 11월에 찍은 큰어머니회 사진입니다. 맨오른쪽은 자모회장님, 두번째는 김아가다님, 세번째는 김재민, 김재형군의 어머니 이시고 왼쪽 세분은 이 페이지에 단골로 등장하시는 '착한 의견의 어머니' 레지오 단원이자 큰어머니회원들 이십니다.

감사합니다